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2006년도 표어 ◎

교회, 백성의 위로자(사40:1)

◎ 행동지침 ◎

- 1. 세계 복음화
- 2. 교회 천국화
- 3. 문화 기독교화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 중병에서 회생한 자의 감사

(시편 30:1-12)

시편 30편은 감사의 시입니다. 감사는 큰 고난 후에 오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시는 애가시와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인은 심한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심한 질병 가운데 있던 시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스올에서 끌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시인은 자신이 구원받은 것만 찬양한 것이 아니라 주의 백성을 불러 자기와 같이 구원받은 경험을 찬양 하하고 합니다.

### 1. 심각한 질병과 회복된 건강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나를 끌어내서”(1절),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3절).

시편 28편에서 다윗은 무덤을 말하면서 거기에 빠졌다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깊은 곳에 떨어져 죽을 직전에 있다고 노골적인 표현을 합니다. 시인은 깊은 곳에 빠진 자신을 하나님께서 깊은 우물 속에 있는 끌어내듯 그렇게 끌어냈다고 말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여호와 내 하나님’(2절)이라고 부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신 확실한 증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도무지 회생의 가능성이 없는 질병을 가졌던 사람이 치유되었을 때 그는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병을 주시기도 하고 낫게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병든 자는 하나님께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 2. 하나님의 노여움과 은총

질병에서 회복된 것을 감사한 시인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시선을 돌립니다. 그들에게 함께 여호와의 찬양하자고 요구합니다. 다윗은 왕인 자신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은혜를 받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에게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5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를 발하시는 것은 잠깐이지만 은혜는 일평생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울음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다윗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후일에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무엘하 24장과 역대상 21장에서 다윗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자신의 힘인 것으로 착각하고 전사의 수를 헤아려 보므로 하나님의 노를 샅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로 다윗에게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벌을 선택하라고 하셨고 다윗은 결국 전염병을 택하며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라는 놀라운 말을 합니다. 결국 전염병이 이스라엘에 떨어졌고 첫 날 칠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 전염병은 이스라엘 전역으로 점점 퍼지다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멈춥니다. 다윗은 그곳을 후일 성전을 지을 장소로 금 육백 세겔을 주고 사서 그 곳에서 번제와 화복제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며 그의 은총은 평생인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만한 때요 하나님의 구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겸손히 시인하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것은 믿는 자의 도리입니다. 국가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의인 열 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은 바로 내가 의인 열 명 가운데 한 사람이 될 때 이 나라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원의 날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야 할 때입니다.

### 3. 시인의 죄와 회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8절). 시인은 자신의 자만하고 교만한 죄를 자기 병과 연결시키며 회개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 죄로 인해 하나님의 얼굴을 자기에게서 돌리신 때를 회상하며 간구합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9절).

시인은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제시하나 이것은 결코 놀랄 일은 아닙니다. 그는 잠시 동안만 주님의 노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총은 평생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의 노는 죄를 전제합니다. 다윗은 자기 몸에 병을 가져온 죄를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자기 군대의 수를 더 크게 믿었던 죄를 자복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민족 보다는 자기민족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풍성한 재물, 높은 교육, 고도의 기술로 복을 생산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으로는 군사력의 증강과 산업항상이 부강한 나라가 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바로 이런 것들을 회개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겸손히 시인하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것은 믿는 자의 도리입니다. 국가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의인 열 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은 바로 내가 의인 열 명 가운데 한 사람이 될 때 이 나라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 4. 개인적 슬픔과 큰 기쁨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재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 띠우셨나이다”(11절).

베옷은 죄를 회개할 때 입는 옷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베옷을 벗기시고 구원하십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12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은혜가 풍성한데 우리가 어떻게 잠잠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눅 6:45)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고 하나님에 관해 생각하고 그가 하신 일을 생각하며 우리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찰 때 우리의 마음은 찬양으로 넘칠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날마다 영광의 찬송을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 TV :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BS(코리아 위성방송)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한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 집사 및 권사 선출 위한 공동의회

## 5월28일 주일 찬양예배 후 본당에서

다음 주일(5월 28일) 찬양예배 후 서울교회 제9대 집사 및 제8대 권사 선출 건을 다루기 위한 공동의회가 본당에서 열린다.

이번 공동의회에서는 지난 14일에 열린 제직회 투표에서 순서가 정해진 당회 추천 집사 후보 124명과 권사 후보 95명(별지 후보자 명단 참고)에 대하여 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를 득표한 사람 중 종다수로 집사와 권사 각 70명씩 선출하게 된다.

투표는 1차에 한하며 전산투표(OMR용지)를 실시한다. 추천된 후보 중 누구든 선택하되 70명을 넘게 기표하거나 집사 권사 기표란에 표시가 없을시 무효 처리 됨을 유의하시기 바란다.

주님의 몸 된 서울교회를 섬길 귀한 일꾼을 뽑는 이번 공동의회에 서울교회에 등록된 18세 이상(헌법 88조1항)의 세례교인은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귀중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 바란다.

# KIMCHI 신학세미나 위해 헌금하기로

## 5월28일 주일 I, II, III부 예배시

동아시아 복음화를 위하여 준비되는 이번 14차 KIMCHI 세미나(위원장: 이영기 장로)가 6월5일부터 10일까지 우리교회에서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Our Challenge for 21st Century"이라는 주제로 동아시아지역의 교계 지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KIMCHI 신학세미나의 지원을 위하여 오는 5월 28일 주일에 서울교회 성도들이 정성을 모아 선교헌금을 하기로 하였다.

개인별, 다락방별, 가족전체의 이름으로 또는 몇 명이 함께 모여서 헌금할 수 있고 한 구좌(100만원) 뿐만 아니라 반구좌, 1/4구좌도 가능하다. 동아시아 교계지도자들이 무사히 입국하여 선교의 비전과 사명을 받으며 성공적인 세미나가 되도록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김치세미나 준비위원회는 분과별 부장과 차장을 발표하고 실행위원은 개별통지 하기로 했다.

# 2006 홍해작전 세부 조직 나와

## 6월6일(화)-6월25일(주) 20일간

지난 주 2006 홍해작전의 전체 윤곽을 발표한 홍해작전 본부는 6월6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계속되는 말씀과 기도의 운동을 은혜 중에 진행되도록 각 부서에서 봉사할 세부 조직을 구성하고 발표하였다. 국가적 위기상황이 중첩되어 성도들의 눈물의 기

도가 요청되는 이 때 홍해작전을 통해 요나의 설교를 들은 니느웨성처럼 국가적 회개 운동이 일어나 민족이 구원받고 가정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 바란다. 2006 홍해작전 세부조직은 다음과 같다.

부서	참모	위원
기획 참모부	송인권	김영주, 서춘식, 오광환, 장양일, 김금준
예배·찬양 참모부	김영준	각부 예배안내 부장, 찬양대 부대장, 멀티미디어단 부단장
동원 참모부	조정식	교구남녀간사, 교육부서 남녀부감
홍보 참모부	김규태	정동호, 이양철, 김시환, 신동기, 김민철
봉사 참모부	이관규	2006 피택권사
안내 참모부	정동학	2006 피택집사

# Pilgrim's Vision Trip 안내

## 10월30일(월)-11월11일(토)까지 성지순례

우리교회는 교회현당을 한 후 성도들과 성지순례를 하겠다는 이종운 목사의 약속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돈독히 하고자 성지순례를 준비하고 있다.

서울교회 성지 순례단은 Pilgrim's Vision Trip 으로 명칭을 정하고 이집트(애굽), 터키, 그리스, 이스라엘을 방문하여 기독교 유적을 돌아보게 된다.

특히 이종운 목사의 집례로 선상춧돌예배 및 성찬

식을 갖고 감동적인 특별 문화행사도 갖는다.

1인당 경비는 약 299만원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사무국에서 신청 및 문의를 받고 있다. 신청은 7월말까지 받는다.

서울교회 순례단의 비전 여행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하시기 바란다.

# 아시아 로잔대회

## 5월 22일(월)-26일(금) 마닐라에서

아시아 로잔 위원회(의장: 이종운 박사)는 제6차 아시아 복음화 교회 지도자 대회(ALCOE VI)를 오는 5월22일(월)부터 26일(금)까지 5일간 필리핀 마닐라 근교 라구나에서 '아시아 복음화를 위한 새마음'이라는 주제로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로잔 위원회(의장: 이종운 박사)는 조종남, 이광순, 강승삼, 최형근 교수 등 20명의 대표단을 파송하며 이종운 박사는 개회 예배 시 기조연설을 하고 조종남 박사와 강승삼 박사가 각각 강사로 나선다.

# 바울선교회 농촌전도 나서

## 6월6일(화) 하루 동안 오치교회에서

바울선교회(회장 오치열 집사)가 2006년도 농어촌100교 운동으로 맺어진 안동 오치교회(담임: 강석환 목사)로 농촌전도에 나서 6월6일 하루 동안 전도, 봉사하고 돌아온다.

전도위원회는 올해부터 전도회 별로 결연된 농촌교회에 나가 농촌전도활동을 펴기로 한 교회의 방침에 따라 안드레와 루디아 연합 전도를 시작으로 계속 농촌전도활동에 나서고 있다. 성도들의 깊은 관심과 기도로 농촌교회가 부흥하고 민족의 75%가 구원받는 날이 속히 오도록 기도한다.

# 사랑부 야외 예배 오늘 한티공원에서

정신 및 신체가 부자유한 장애우들이 모이는 사랑부는 특성상 야외로 이동하기 어려워 오늘 21일(주일) 따뜻한 봄을 맞아 교회옆 한티공원에서 야외 예배로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한다.

관심 있는 성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5월 성경통독자 시상

##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3등: (8교구)김현주 권사

2등: (5교구)이남복 권사 (9교구)이남성 집사

1등: (1교구)서경애 권사 (2교구)이응선 장로

(3교구)손병석 집사 (5교구)이윤영 권사

(8교구)강희자 권사, 김인식 권사

(13교구)김동준 학생

(14교구)석상화 집사

통독자 시상식은 찬양예배 시간에 있고 수상자는 전원 앞자리에 앉아 참석해야 한다.

# 북한 구원 운동

## 6월19일(월) 우리 교회당에서 - 목회자 구국기도회 준비 중

북한 김정일 정권의 폭정 하에서 신앙자유를 빼앗긴 북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목회자 구국기도회가 북한구원운동(대표회장: 이종윤 목사, 상임회장: 김상철 장모) 주최로 6월19일(월) 우리 교회당에서 개최된다.

운동본부에서는 이미 준비위원회(위원장 최건호 목사)를 구성하고 북한구원 전국 순회 횡발 기도회를 경기북부지방을 시작으로 계속 기도회를 갖고 3,000명의 목회자를 초청하여 이 시대의 출애굽 대행진이 이루어질 날을 위한 기도폭발을 준비하고 있다.

탈북난민 보호운동(CNKR)을 우리교회 발의로 7년 전 벌여 일천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UN에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거니와 2년 전 3.1절 목회자 금식 기도대성회를 우리 교회당에서 또한 개최한 바 있다.



▲ 3.1절 목회자 금식 기도대성회에서

선교지에서 온 편지-인도, 조범연 선교사

## 인도에 뜨거운 성령의 바람이...

초여름에 접어든 한국의 날씨는 어떤지요?

저는 목사님과 서울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특별히 중보기도팀원들의 기도와 정성으로 곳곳하게 사역에 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부족한 종이 이 거대한 나라 인도에서 어떻게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할지 그리고 UBS의 신학생들을 어떻게 복음의 신앙으로 무장시켜 목회전선에 나가도록 도와주어야 할지를 고민하며 기도하는 중입니다.

지금 인도의 뿌네는 낮에는 거의 40도에 육박하는 무더위 속에서 어떤 때는 숨쉬기조차 힘듭니다. 뉴스를 보면 매일 수십 명의 사람들이 더위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이 인도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나라이고 대다수의 사람들의 마음이 참 착하고, 순수한데 이 영혼들이 복음만 알고 믿으면 새로운 나라로 변화될 것인데...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5월이 되니 학교도 방학이라서 캠퍼스에 학생들도 거의 없고 고요한 수도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4월19일에는 UBS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파레 총장님께서 저를 소개하시면서 한국에서 2호 교수로 부임을 했는데



2007년도부터 선교신학 박사과정을 개설하는데 일을 맡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6월에 시작되는 새 학기를 준비하며 조용히 학교에서 강의 준비를 하면서 학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곳의 학생들은 학문 실력과 영어 능력이 뛰어나고 자부심도 강해 보입니다. 이 학생들을 잘 가르치려면 제가 수험생처럼 공부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는 생각에 긴장을 하면서 강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이나 주일이 되면 학생들의 교회를 방문해서 설교하고 학생들의 목회사역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역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교회를 방문하다보니 제가 지혜롭게 처신을 해야한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UBS를 통해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잘 길러내도록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선교사가 되도록 기도해주시시오.

그리고 교회방문사역을 통해서 인도의 목회자들을 잘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혜롭게 처신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도에서 조범연 선교사

스승의 주일-감사의시

## 사랑의 풀안

김명자 집사(12교구)

생각만 해도

따사로운 사랑의 풀안

머리에 은발이 가득해도

오월의 꽃보다 더 아름다운

우리 선생님!

멀리 가까이

기름진 목양의 풀

말씀의 젖으로 여러 양들 키워낸

낡아진 가죽성경

빨간 줄 투성이지만

그 흔적은

십자가 보혈의 능력인가요

오늘도

그 젖에서 터져나오는 생명의 단물

이 동네 저 동네

온 동네 휘돌아

우리 가슴 가슴에

깊은 샘 되어 흐르고

그 중에

한 마리 잃은 양 찾아

울음 삼키고 나서는

우리 선생님!

뼈가 녹아져

눈물 빛 영롱한

사랑의 풀안은

주님이 기도하신

겻세마네 동산인가요

-스승의 날 장로님께

서울교회 홈페이지 개편

# 오늘부터 서울교회 홈페이지가 바뀝니다

## 정건 집사(멀티미디어단)

홈페이지 개편작업에 멀티미디어단을 써주시고 5개월간의 작업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서울교회 홈페이지 개편은 '말씀중심의 콘텐츠 개편', '서울교회 디자인적 정체성 반영'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었습니다.

그간 외부 사이트에 부분적으로 의존하던 말씀관련 동영상 콘텐츠를 전면 내부 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새로운 동영상 스킨을 도입하여 본문을 글로서 확인하면서 설교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주일예배, 찬양예배, 수요일예배, 새벽기도회 등 지난 예배와 흥해작전, 고난주간, 사명자대회 등의 교회행사 동영상 또한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디자인적인 면에서 VIS (Visual Identity System)를 도입하여 서울교회가 가지는 디자인적 컨셉을 반영, 통일하였습니다. 교회컬러인 '스카이블루'와 교회 상징인 파이프로르간을 모티브로한 디자인을 전개

하였으며 전체 메뉴구조도 적절한 네이밍작업과 함께 새로운 체계로 분류하였습니다.

멀티미디어단은 이번 개편을 '끝'이 아닌 '시작의 끝'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서울교회의 새로운 콘텐츠를 기획, 발굴하여 서울교회의 사명을 위한 편리하고 유용한 도구로써 홈페이지가 이용되도록 계속 힘쓰겠습니다.

서울교회 홈페이지주소: [www.seoulchurch.or.kr](http://www.seoulchurch.or.kr)

## 아멘 관현악단 단원 모집

주일 3부 예배 시 관현악 연주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아멘관현악단이 추가로 단원을 모집한다. 찬양에 열정이 있고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의 지원 바란다.

## 카자흐스탄 단기선교팀

25일 목요일 오후 7시 601호에서 카자흐스탄 단기선교팀이 전반적인 준비를 위해 모임을 갖는다.

## 동정

- 이종윤 목사는 아시아 로잔대회 참석차 22일(월) 필리핀으로 출국하고 27일(토) 귀국한다.
- 이사: 한용삼, 김선영 성도 방배동 970-30 미도빌 T.581-0688
- 개업: 최옥주 성도(1교구) 솔로몬 공인증개사사무소 (삼성 APT 앞) 이계홍 집사 특음소 전문점 '조원의 집' 개업 T.031-723-6255
- 주간식당 봉사: 바울 선교회(5월21일) 엘리야 선교회(5월28일)
- 금주의 식사제공: 김인순 집사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교회제공)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30분	

고구 찬양대회를 마치고

#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 유율상 집사(6교구)

어느 해보다 찬양의 열기가 뜨거웠던 서울교회 고구 찬양대회!

교구마다 얼마나 맹연습을 하였는지 찬양대회가 열리기 직전까지 최근 수개월동안 은교회 총마다 교구의 다락방마다 온통 찬송소리로 진동하였습니다. 어떤 교구는 초등학교 교실을 빌려서 또 다른 교구는 단체 야외모임을 가서도 연습을 하였으니 찬양이 가득한 우리 서울교회를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셨을까.

사실 저희 6교구는 사랑상을 받으리라고는 꿈에도 기대하지 못한 뜻 밖의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천상의 악기 파이프로르간을 보유한 우리 서울교회에는 어느 교회보다 음악적 수준이 고르게 높아서 지휘와 반주를 할 줄 아는 분들도 많고 또 찬양에 소질이 많은 교구들이 많은데, 저희 6교구에는 지휘나 반주 하실 줄 아는 성도님이 한분도 없고 연습할 장소나 피아노도 없어서 연습도 제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찬양대회 날짜와 지정곡이 발표된 후, 대회 날짜는 하루하루 다가오고 다른 교구들이 매우 수준높은

화음을 내며 연습하는 광경을 보니 그들이 무척 부럽기도 하고 마음만 초조했습니다. 여러 성도들 앞에서 은혜롭게 부르지는 못해도 참피는 면해야 하는데... 성경을 펴놓고 주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새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이다 (시편 149:1)

자유곡으로 '예수님이 좋은걸' 을 정하여 주님 말씀 따라 다락방별로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피아노나 악기가 없어 손뼉으로 박자와 장단을 맞추고 서로 간에 연합된 마음으로 사랑의 화음을 이루어 갔습니다.

이런 형편의 6교구이기에, 심사발표가 있는 순간 너무나 감격하여 감사와 은혜의 심정을 억제 할 수 없었습니다.

강화도에서 4시간을 마다하지 않고 동참한 성도며, 수술 후 불안정한 가운데 참석하신 권사님! 휠체어를 이끌고 오신 성도님!

6교구 가족들 모두 모두 사랑합니다. 목사님들!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서울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이 좋은걸 어떡합니까? 서울 교회가 좋은걸 어떡합니까? 할렐루야!

## ■ 교회오시는 길



▶ 대치역 2번 출구에서 걸어서 3분 거리

## 서울 주간기도

###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아시아 로잔 대회를 통해 아시아 복음화가 활성화 되도록
2. 호산나 복지법인과 소외된 이들을 위한 사랑의 집터를 위하여
3. 북한의 신앙자유와 디아스포라 영어교실 위하여
4. 5.28 집사·권사 선출이 은혜롭게 되도록
5. 나라의 안락과 5.31 지자체 선거를 위하여